

국제학술대회 개최보고

EXPO '93을 기념하고 WCY '83 국제학술대회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1993년도 제1차 아세아 태평양 국제통신 학술대회(1993 Asia-Pacific Conference on Communication :대회장은 양승택 한국전자통신연구소장)는 지난 8월 25일 부터 27일까지 EXPO 개최지인 대전의 KAIST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는데 성공적으로 끝났다. 본 학술대회는 17 개국으로 부터 200여편의 논문 발표와 110여명의 외국인을 포함해서 540여명의 정보통신 전문가가 참석한 국제적인 학술발표회였다.

본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윤동운 체신부장관이 개회식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였다. Keynote speech 에서는 AT&T의 부소장이며 빅뱅이론을 뒷받침하는 반사파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Penzias 박사가 정보통신 의 향후 방향에 대한 강연을 하였고,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이며 전략 정보통신분야 미국 대통령 자문역을 맡은 Oettinger교수가 앞으로 정보통신이 가져다줄 환희와 고뇌란 주제로 발표하였다. 또한 정보통신분야 표준화를 주관하 는 ITU의 사무국장을 역임한 Butler씨가 정보통신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, KT의 조백제 사장도 KT의 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였다.

200여편이 5개의 Session으로 나누어져 논문발표가 진행되었는데 마지막날까지 발표장에서는 장소가 협소하게 느 낄정도로 서서들은 사람도 많은등 시종 진지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. 주요분야는 ATM, 데이터통신, 이동, 위성, 무선 통신등 통신분야 전체를 다루었다. 마지막날에는 EXPO Tour가 있었는데 조직위원회측의 주선으로 관람이 잘 진행 되었다.

더욱 뜻 깊은 것은 EXPO '93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본 APCC 학술대회를 아세아·태평양 지역의 정보통신 학술교류의 공동행사(아·태 지역 참여 학회 공동주최)로 계속 개최하도록 합의했다는 사실이다. APCC '93대회 기간중에 APCC 운영위원회(APCC Steering Committee)가 구성되었으며(한국, 일본, 중국, 대만, 오스트랄리아 및 IEEE COMSOC/APC 대표 참석), 차기대회는 1995년 여름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. 아시아 태평양 각국 을 순회하는 본 학술대회는 앞으로 정보통신 학술교류와 기술발전의 국제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.(자료정리 : 임주환)